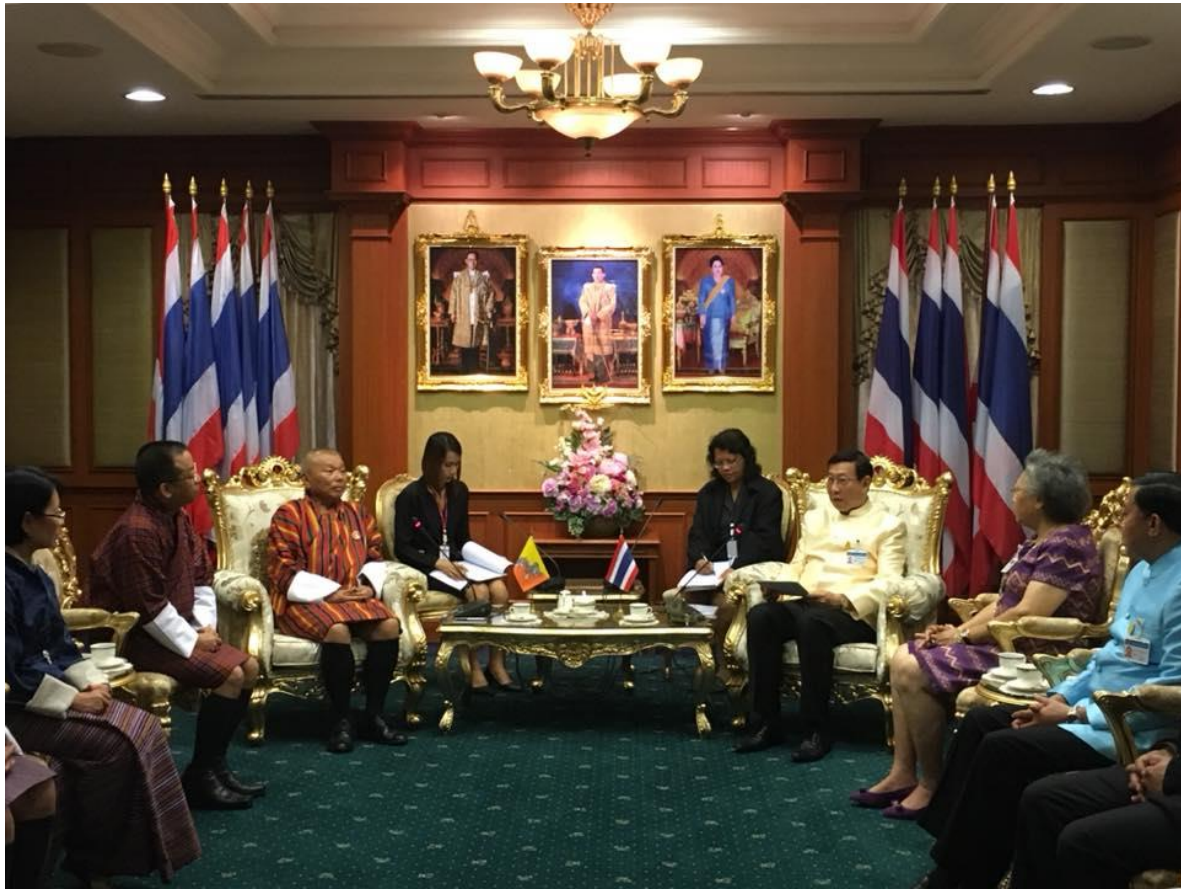


입법회의의장(NLA), 입법회의의 방문객으로 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부탄 국회의장을 응대함

입력 2018.04.26 (11.32)



2018년 4월 26일 - 입법회의 의장은 입법회의 손님으로써 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부탄 국회의장을 응대했으며 이 자리는 앞으로 태국입법회의와 부탄의 더욱 밀접한 협력과 우호 관계를 위해 이뤄졌다.

입법회의의장인(NLA) 폰펫 위чит촌라차이 명예교수는 제 2 국회빌딩 제 1 접견실에서 태국 입법회의의 손님으로써 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짝미 쌍뽀(H.E.Mr.Jigme Zangpo) 부탄 회의장을 비롯하여 수행원을 응대하였으며, 이번 방문은 태국 입법회의와 부탄 의회 사이의 우호 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입법회의의장은 “태국을 방문한 국회의장 및 그 일행을 응대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웠고, 무역분야 투자분야 관광분야 농업분야 그리고 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학술협력 및 의료 서비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29년 동안 맺어온 유대관계가 이번 부탄 입법회의의 태국 왕족, 행정부 방문 및 입법부 산하에 있는 양 국가의 “의원친선협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질 것이다. 태국의 국가 개혁에 있어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태국 관념론(Sustainable Thai Idealism)” 아래에서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로드맵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서 국가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국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부터 모든 분야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입법위원회는 양 국가의 관계와 협력을 지원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탄 국회의장은 “이번에 태국 입법의회에 방문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본국에서 받는 것과 같은 융숭한 영접을 받았으며, 태국과 부탄이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농업, 장학금 지원, 의료인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었고 관광분야 중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 태국이 부유한 부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요한 최종 목적지(destination)로 “두 국가, 하나의 최종 목적지(destination)”라는 기조 아래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앞으로도 양국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조를 비롯하여 양국간의 밀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태국 하원사무처 국회 방송국

아루니 판쌌다/기자/편집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

솨자이 톡쿤/번역